

# 자랑스런 안전인

## 제12호 CJ주식회사 대소공장 김영태 대리



### 타인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안전인

그 동안 불던 매서운 겨울바람도 잠잠해지고 겨울 햇살은 봄날처럼 나른함에 움추렸던 어깨를 펼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감은 잠시일 뿐 벌판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가벼운 옷차림을 여지없이 휘감고 지나간다.

차가운 겨울공기를 안고 우리를 맞이하는 이가 있었다. 오늘 소개하려는 CJ주식회사 대소공장의 김영태 대리이다. 김영태 대리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착으로 무재해 사업장 구현”이라는 경영 방침 아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전개하는 CJ주식회사 대소공장에서 안전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 ■ 배려하는 마음의 안전인 될 터

12년 동안 공무원서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다 2000년부터 안전관리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태 대리는 안전 업무 경력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 다짐한 마음으로 오늘도 현장을 누빈다고 한다.

“나 하나의 고통과 노력으로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라도 작은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초가지붕위의 활짝 핀 박꽃처럼 기꺼이 웃겠다”라는 것이 김영태 대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이 신념이 있기에 KOSHA200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준비작업, 자체 안전보건부분 DNS 프로그램(IRS)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개인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 ■ 재미있는 안전을 한단계 올리는 해로 삼아야

김영태 대리는 CJ주식회사 대소공장에서 안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난 한해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과 자율적인 안전을 정착시킨 해로 평가하고, 안전관리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김영태 대리는 “회사에서는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과 “안전을 하는 안전인으로서 사업장에 무재해를 선물하겠다”라는 포부를 말하며, 과거 강압적인 관리적 방법과 체계화되지 못한 안전보건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함께 승화시키자라고 안전인들에게 제안한다.

이번 인터뷰는 2003년도 첫 번째로 찾은 안전인답게 안전 파이팅! 무재해 좋아를 외치는 김영태 대리에게서 우리나라의 희망찬 안전의 미래를 볼 수 있어 부푼 기대감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다. 

〈최종덕 기자〉